GENDER EQUALITY

2020 초등 성평등 교육 수업 안내서 | 전학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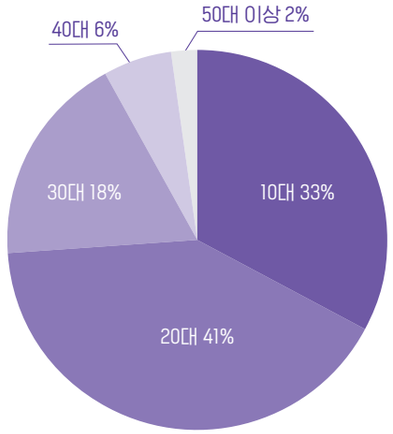
디지털 성범죄 예방 수업 Q&A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하여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어렵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학생들을 마주하며 오는 막막한 질문들을 모아모아
그 방법을 함께 찾아가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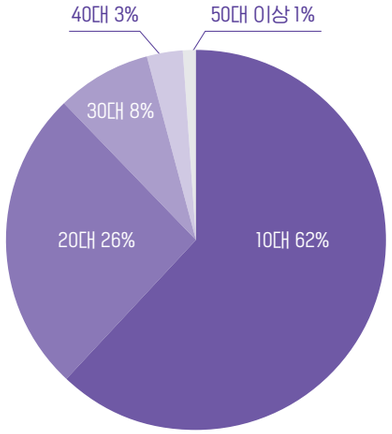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Q1. 디지털 성범죄 관련 수업을 아이들에게 꼭 해야 할까요?

N번방 사건이 워낙 끔찍하고 아이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폭력적이라 굳이 이 수업을 해야 하느냐는 궁금증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야기해야 할지도 막막하고, 그냥 기존의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대신하면 안 될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요. 하지만 N번방은 우리 교실과 동떨어져 있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파악된 피해자의 60% 이상이 청소년이었으며 가담한 피의자들의 33%는 10대였습니다.



피의자 연령별 비율



피해자 연령별 비율

'n번방·박사방' 등 피해자 60% 이상 10대 청소년… 경찰, 소지자 추적 연말까지 (한겨레, 2020.05.28.)

학생들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이미 다양한 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채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지요. 이런 환경에서 사건 이름만 듣고, 혹은 주위의 왜곡된 이야기만 듣고 넘어가기 보다는 교실이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교사의 발화와 수업으로 명확하게 사건을 들여다보고 함께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내되는 사실이나 수업의 범위는 우리 반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조정되어야 하겠지요. sns 생활 에티켓, 경계존중 수업부터 시작하며 건강한 관계를 위한 이야기를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수업도 조금 더 아이들에게 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수업을 할 때 피해 사실이 자극적으로 전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디지털 성범죄나 성폭력 피해자 비율을 보면 여성이 높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여자가 많다, 가해자는 남자가 많다는 통계를 언급해야 할까요? 남학생들이 상처받지는 않을까요?

성폭력 예방교육 수업을 하다 보면 피해자, 가해자의 성별이 언급되곤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단순히 같은 성별이라는 이유로 '가해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학생 여학생 할 것 없이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범죄를 바라보고 문제를 이야기하죠.

성별을 가르는 수업이 아니라 이런 범죄가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범죄가 아니라 '성'범죄로 불리는 이유, 성범죄 피해자 비율이 여성이 더 높은 이유에 대해 분석하다 보면 사회적 문제를 더 깊게 바라보게 됩니다.

성폭력은 생물학적 욕구가 아니라 젠더 권력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아동이 성인을 때리는 것과 성인이 아동을 때리는 것의 위계가 다른 것을 생각하면 폭력은 권력에 의해 발생한다는 말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성욕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성범죄 가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불균등한 젠더 권력 관계 속에서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인간을 도구화할 때 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학생들은 통계 자료를 통해 현재 젠더 기반 폭력이 어디에서 어디로 향하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 문제의 구조적인 속성을 통계 자료를 통해 함께 살펴보는 것이지요.

따라서 특정 성별을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수업이 아니라 **성차별 구조를 이해하고 차별에 저항하는 시민으로 자라나는 수업**입니다. '왜곡된 남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동료 시민성'을 길러주는 데에 집중하면 어떨까요?

Q3.'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불법촬영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10년간 급격하게 증가 했습니다.[1]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촬영,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고 소비하고 유통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범죄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성적 대상화·성적 도구화하여 일어났던 기존의 성범죄와 같은 양상이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테이프에서 인터넷으로 매체 속성이 변한 것이죠.

물론 변화해온 매체 속성에 따라 유포되기가 더 쉽고 완전 삭제가 힘들다는 점, 채팅 어플 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하기가 더 쉬워졌다는 점, 가해 청소년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 등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성을 건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타인을 성적 대상화하며 같은 인격체로 보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범죄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꾸준히 있어왔고, 유형만 바뀌었을 뿐이죠. '성'을 제대로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성범죄'를 인식하고 '디지털 성범죄'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업 참고 자료

N번방… 갑자기 나타난 '신종' 성범죄라고요? | 양평원X허핑턴포스트코리아

영상보기

학생들과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디지털 성범죄가 젠더 기반 폭력에 새로운 기술이 더해졌을 뿐, 범죄의 양상은 과거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볼 수 있습니다.

① 디지털 성범죄를 '신종 범죄'라고 부를 수만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② 디지털 성폭력의 연결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디지털성범죄 10년간 23배 증가… "N번방 사건, 강력 처벌 촉구"'(뉴시스, 2020.03.24.)

Q4. 그렇다면, 성폭력 예방 교육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요?

첫째, <가해 예방 교육>을 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폭력 예방 교육은 '피해 예방' 교육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싫어요, 안돼요, 하지마세요"는 성폭력 예방 교육의 기본 문구였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피해자가 조심하고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가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할 때는 '친구를 때리지 말아라'라고 가해 예방을 가르치면서 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할 때는 '싫다고 말해라'라고 피해 예방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좌) 이곳은 몰래카메라 촬영 주의지역 - 지난 2014년 6월 25일 오후 서울 지하철 연신내역 에스컬레이터 앞에 '몰래카메라 촬영 주의 지역'을 알리는 지하철 경찰대의 입간판이 서 있다. (오마이뉴스, 2014.06.25.)
우) '몰래 찍는데 어떻게 조심합니까' 경찰 안내문 논란 (국민일보, 2016.03.03.)

위의 두 사진은 지하철역에 실제로 붙어있던 '몰래 카메라 주의' 포스터입니다. 두 안내 문구 모두 '몰래 카메라'를 '주의'하라며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단속, 처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피해자에게 조심하라며 피해 예방을 강조했다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몰래 카메라'라는 용어 또한 잘못되었습니다. '몰래카메라'라는 용어가 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촬영하고 결과물을 유포하는 것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인데도 말이에요. 법률에서도 '불법촬영'이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나

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2209992
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4156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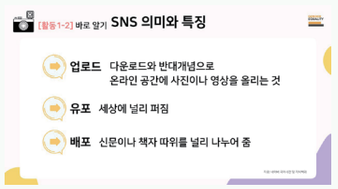
경찰에서도 2017년부터 몰카, 몰래카메라 라는 용어를 불법촬영으로 대체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장소의 안내문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인식의 전환으로 가해자에 초점을 맞춘 가해 예방 문구로 포스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명시하고, 가해 행위가 범죄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안내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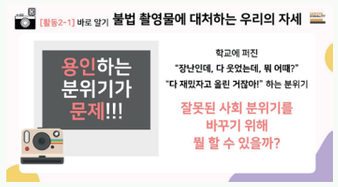
'허락 없는 촬영은 범죄' (중앙일보, 2017.12.06.)

함께 해볼 수 있는 수업

SNS 생활 에티켓과 불법촬영 예방



강의 자료 **기본편** 다운로드



강의 자료 **심화편** 다운로드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SNS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상황을 통해 촬영과 업로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예절을 살펴봅니다. 더 나아가 불법 촬영이 왜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인지 알고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업입니다.

자료 : 젠더온 http://genderon.kigepe.or.kr ⇨ 강의자료실 ⇨ [초등] SNS 생활 에티켓과 불법 촬영 예방(기본편/심화편)

https://news.joins.com/article/22180519

둘째, 성폭력은 성이 문제가 아니라 <폭력>이 문제입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은 건강한 성을 되찾고 성을 폭력, 범죄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도록 서로를 존중하는 시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교육 = 성폭력 예방교육** 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다보니 아이들은 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이전에 성폭력이라는 부정적인 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잘못은 '성'이 아니라 '폭력'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적 주체로서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상대의 의사를 존중하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평등 관점에 기반 한 성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성적대상화>의 문제를 이해합니다.

성적대상화란 인간을 같은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 먼저 대하기보다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적대상화는 아이들에게 익숙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미디어에서 아이돌이 짧은 치마를 입고 춤을 추는 것, 예능에서 타인을 외모로 평가하는 것, 교실에서 이성을 친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몸매 순위 매기는 등 성적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 등 모두가 해당합니다.

성적대상화가 극대화된 것이 음란물입니다. 음란물이 문제인 이유는 한쪽의 시선에서 타인을 대상화하여 폭력적으로 왜곡하여 성관계를 그려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욕구나 감정은 배제되고 나의 욕구는 극대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비하와 멸시, 범죄 행위까지 포함되어 음란물이 제작되기도 합니다. 또 '음란물'이라고 유통되는 영상 중 불법 촬영물이 많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넷째, <성적자기결정권>을 이해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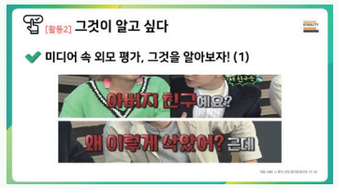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이 사적인 문제에 대해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생활 방식, 삶의 가치관부터 성적 행동까지 넓은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학생들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고 하면 "마음대로 성관계 해도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단순한 의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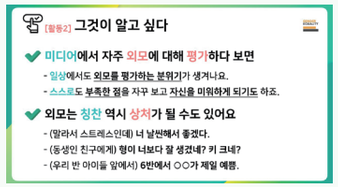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연애나 성적 행동을 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치 않은 성적 행위를 강요받지 않고 거절할 자유, 성적 수치심을 감내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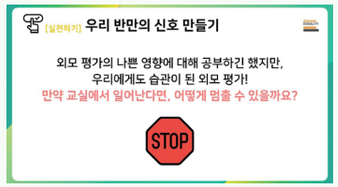
함께 해볼 수 있는 수업

외모평가 멈추기



강의 자료 다운로드





미디어에서의 성적대상화를 다루고 외모 평가를 멈추는 수업으로 성적대상화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미디어 속 외모 평가를 찾아보고, 이런 평가가 계속되면 내 사고와 문화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생각해본 후, 우리 반에서 외모 평가를 멈추기 위한 신호를 만들어 봅니다. 미디어 속 외모 평가를 주제로 성적대상화 수업을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자료 : 젠더온 http://genderon.kigepe.or.kr ⇨ 강의자료실 ⇨ 외모평가 멈추기

성적자기결정권을 이해하면 분위기에 휩쓸려 성적 행동을 하는 대신 내 마음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정말 좋은지" "동의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자기결정권이 있음을 알고 내 마음대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해볼 수 있는 수업

「어린이를 위한 동의 1 : 어린이를 위한 경계존중 이야기」 영상 활용 수업안내서

강의 자료 다운로드

본 안내서는 『어린이를 위한 동의1 : 어린이를 위한 경계존중 이야기』 영상을 활용한 수업 활동 연계 동의·경계존중 교육 수업자료입니다. 나의 경계에 대해 생각해보고, 나의 경계를 누군가 허락 없이 침범했을 때 기분이 어떤지 감정 카드로 표현해 봅니다. 상대방의 경계를 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동의하는지를 물어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동의하는지 물어보는 표현과 허락·거절하는 표현을 생각해봅니다. 동의했다가 마음을 바꾸더라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 거절하는 표현을 정확하게 하지 않더라도 동의하지 않았다면 허락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도록 합니다. 나의 경계를 지키고, 상대방의 경계 또한 존중하기 위해 내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규칙과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하기 위한 규칙을 생각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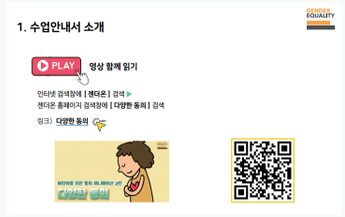
자료 : 젠더온 http://genderon.kigepe.or.kr ⇨ 강의자료실 ⇨ 「어린이를 위한 동의 1: 어린이를 위한 경계존중 이야기」 영상 활용 수업안내서

성적자기결정권 문제는 연인 사이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킨십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여겨져서, 물어보고 뽀뽀하면 분위기가 깨질 것 같아서라는 이유로 서로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상황이 생기죠. **"연인 사이, 뽀뽀정도는 묻지 않고 해도 괜찮다"** 라는 주제로 학생들과 토론을 해보며 성적 자기결정권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동의'를 주제로 다양한 상황에서 동의를 구하거나 거절하는 연습을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해볼 수 있는 수업

「어린이를 위한 동의 2 : 다양한 동의」 영상 활용 수업안내서



강의 자료 다운로드

이 수업은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알기 전에 그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내 마음의 가치를 앎에서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가치를 알고 이를 확장시켜 나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을 존중하는 방법으로서의 동의를 배웁니다. 나의 마음, 타인의 마음을 넘어서 공동체가 존중하는 서로의 마음을 통해 어린이는 나의 생각과 느낌, 행동에 대해 개인적인 자신감을 얻고, 관계 속의 평등을 배우며, 공동체적 신뢰를 확인할 것입니다.
본 수업의 차시는 토론 활동, 탐구 활동, 다짐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활동 속에서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문제 상황의 원인을 탐구하며, 나와 타인, 공동체의 층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자료 : 젠더온 http://genderon.kigepe.or.kr ⇨ 강의자료실 ⇨ 「어린이를 위한 동의 2: 다양한 동의」 영상 활용 수업안내서

젠더온 카드뉴스 <동의를 배워봅시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수업을 고민하는 교사들에게

N번방이라는 거대한 범죄와 성착취가 한 번의 수업으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각적인 효과가 없어 실망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가해를 예방하고 방관하지 않는 시민으로 자라나는데 분명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변화는 가까운 미래에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참고자료

기사

'디지털성범죄 10년간 23배 증가… "N번방 사건, 강력 처벌 촉구"'(뉴시스, 2020.03.24.)

'이곳은 몰래카메라 촬영 주의지역' (오마이뉴스, 2014.06.25.)

''몰래 찍는데 어떻게 조심합니까' 경찰 안내문 논란' (국민일보, 2016.03.03.)

영상

<N번방… 갑자기 나타난 '신종' 성범죄라고요?> (양평원X허핑턴포스트코리아)

<불법촬영물 보는 사람들의 변명! 팩트체크해드립니다> (양평원X허핑턴포스트코리아)

사이트

한겨레 21, nL너머 디지털성범죄끝장내기 프로젝트(아카이빙페이지) stopn.hani.co.kr

십대여성인권센터 http://www.teen-up.com

안전한 온라인을 위한 깨알 가이드 https://teen-it.kr

아웃박스 -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www.outbox.co.kr

책

<우리가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때> (추적단 불꽃, 2020)

수업자료

젠더온 수업자료 | SNS 생활 에티켓과 불법촬영 예방 기본편/심화편

젠더온 수업자료 | 외모 평가 멈추기

젠더온 수업자료 | 「어린이를 위한 동의 1 : 어린이를 위한 경계존중 이야기」 영상 활용 수업안내서

젠더온 수업자료 | 「어린이를 위한 동의 2 : 다양한 동의」 영상 활용 수업안내서

젠더온 카드뉴스 | 동의를 배워봅시다

기획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개발 김수진(백양초등학교 교사)

디자인 디자인스튜디오 다다름

발행년도 2020년

발행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예방 수업

Q&A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GENDER EQUALITY